Fancy Nirvana  
미래적 환상, 혼성의 풍경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매체의 진보는 인간 삶의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미처 상상 하기 어려웠던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사이보그 인간이 탄생하는가 하 면 성전환수술이라든가 유전자의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은 하나 의 생명체처럼 영토의 경계가 없이 자기 증식하면서 동시에 전 지구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가 하면 첨단 전자장비로 실현된 가상현실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실재보다 더욱 리얼한 꿈과 환상의 세계를 경 험할 수도 있게 되었다. 보드리야르의 표현대로 우리는 원본은 없고 현실의 모사(模寫)나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 실재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시뮬라르크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선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지 디스토피아가 될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 수학한 뒤 최근 귀국한 미디어 설치작가 이한수는 공상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테크노피아 시대의 꿈과 환상, 불안의 양상을 혼성의 풍경으로 연출하고 있다. 어두운 전시 공간 속에 형광 물질로 칠해진 다양한 도상들이나 블랙 라이트, 레이저 광선, 각종 기계장치, 자동감지 센서등을 사용한 설 치 작품들은 관람객들을 새롭고 환상적인 세계로 쉽게 안내한다.

캠코더를 장착한 모형자동차(무선 우주 탐사선)가 전시장 이 곳 저 곳을 다니면서 화면을 전송받아 대형 LC D화면에 동시에 재현하고 있는 <천왕성에서 온 일기예보>(2001)는 관객들에게 우주행성 탐험을 가상체험 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코끼리 인형에 레이저 포인터와 프로펠러를 달아 관람객이 다가서면 작 동하게 되어 있는 <메신저 Z>(2003)는 벽면에 환상적이고 키치적인 레이저 문양을 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여 준다. 이들 모두 공상 과학적인 상상력의 산물로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해 관객 참 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테크노피아의 세계가 과연 인간의 이상(理想)을 실현시켜 줄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되어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작품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여덟 개의 팔이 달린 로봇 모양의 은색 고무풍선이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로봇 투>(2001)는 전기모터에 센서가 작동하면서 공기의 주입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터의 회전음과 공기 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두개의 로봇은 바닦에 엎드렸다 일어서다를 반복하지만 로봇의 동작은 활력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로봇 형태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팔이 여덟 개 달린 관음 보살상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와 같이 종교적이거나 진지한 주제들을 가볍고 경쾌한 테크놀로지적 방식과 결합시켜, 전통과 현 대가 교차하면서 빠르게 변모하는 지구촌의 문명사회를 풍자한다. 우주복과 우주 헬멧을 착용한 우주인이 아주 느린 움직임으로 산속에서 기공수련을 하는 비디오 영상물 <레이저 맨 설산수도(雪山修道)>(2002) 역 시 이와 흡사한 접근방식이다. 이 영상물은 선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고 있 는 참선 수행의 방식과 무중력 공간에서 유영하는 우주인의 느린 동작의 공통점을 하나로 결합시켜 오랜 전 통과 새로운 현대가 접목되는 부분에 주목을 한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이종 교배적 특징은 최근작인 <무아( 無我) 몬스터 테크노피아>(2003)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시공간 안에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에어리언이 예수, 성모상, 부처 등 종교 적인 성인들과 함께 애니메이션기법으로 합성, 변형되고 있는 이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작품은 공상과학적 산물과 서로 다른 차원의 종교적 형태가 뒤섞여 마치 미래의 종교 다원주의를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매체의 진보로 인하여 모든 이미지가 쉽게 가공, 변조되며 합성되고 있는 오늘날 작 가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무한대로 증식하면서 변신하고 있는 있는 몬스터나 아바타의 캐릭터 처럼 이들 종교적인 도상들을 아우라를 제거하여 유머스럽게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과학만능의 우주 시대에 전통적인 신앙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것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테크노 시대의 이 러한 문화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원주의, 혼성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서 로 다른 의미를 조합해서

만든 작품제목에서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이한수 작품의 전형성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비유가 적절히 잘 표현된 작품이<21세기 보살>(2001)과 <복제

된 천사>(2002), 그리고 최근의 <팬시 니르바나(Fancy Nirvana)>(2003)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작품제목에서 전통과현대적인의미가절묘하게결합되고있는것을엿볼수있다.전시분위기에 있어서도이들대부 분의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복제기술이나 첨단 테크놀로지와 결합되어 연출되고 있다. <복제된 천사>에서는 바로크 스타일의 아기 천사두상(頭像)이 다양한 색채로 복제되어 설치 되어 있으며, <21세기 보살>(2001)에서는 가부좌를 하고 우주 헬멧을 쓴 서구의 정원 난장이 인형들이 마치

광배(光背)를 지닌 보살상처럼 둔갑되어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팬시 니르바나>(2003)에서는 동양의 전통 적인 보살상이 핑크, 주황, 노랑, 녹색의 형광색으로 복제되고, 양미간 사이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설치되어 가볍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천사나 보살의 성스러운 이미지는 대량으로 복제되어 성스러움과 유일성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 고 소비사회의 팬시상품처럼 진열되고 있다.안개가 자욱이 깔린 어두움 공간 속에서 발산하는 화려한 레이 저 광선과 야광 빛을 발하는 복제된 도상들은 마치 현대문명의 테크놀로지적인 성과와 자본주의의 번성함을

반영하듯 화려하기만 하다. 여기서 바로크 천사상이나 정원난장이 인형, 보살상 등 이들 복제된 도상들은 작가의 연금술에 의해 블랙 라이트 불빛 아래서 각기 다른 형광색을 발산하면서 다양한 인간 집단처럼 존재 한다. 그 군상(群像)들의 얼굴 양미간 사이에는 광명을 비추는 부처의 백호(白毫)처럼 레이저 포인트가 설치 되어 환상적이고 키치적인 문양(UFO라든가, 아기 천사상, 하트 모양 등)을 벽면에 투사하고 있다. 군상들의 일부는 형태가 왜곡된 채 쓰러져 나뒹굴고 있거나 빛을 잃고 양미간에 구멍만이 뚫려 있는 것들도 있다. 몇 가지 색채나 다양한 형태로 배열된 이러한 군상들은 테크노피아 시대에 있어서 지구촌 다양한 인간 집단들 의 혼성문화를 반영하면서 꿈과 환상, 불안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일찍이 움베르토 에코는 2000년대 세계문명은 갖가지 문화가 뒤섞인 '잡종적혼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 보 았다. 오늘날 자본이나 상품, 물질, 이미지, 지식, 범죄, 문화, 종교, 신념, 패션, 공해, 마약 등 지구상의 소통 가능한 것은 거의 영토적인 경계를 넘어서 쉽게 이동한다.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대자본과 무역, 금융 , 생산의 전지구적인 체계는 지구 전역의 가구들, 공동체들, 민족들의 전망과 운명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한데 묶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더 이상 각 국가만의,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 다. 이 전 지구적인 체계는 이전에 뚜렷이 구분되었던 지역간, 국가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면서 다양한 문명권 의 만남과 충돌을 야기시킨다. 그런가 하면 실시간에 전지국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역에 국한된 생활을 할지라도 인지할 수있는 세계는 그야말로 전지구적인 것이 되었다.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실재현실과 가상현실, 아날 로그와 디지털 방식 등 서로 다른 양상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혼성화되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인간의 신체와 의식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기 마련이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현실세계와 환 상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문화현상을 패러디하고 있는 이한수의 작업은 지구촌의 오늘날 현재상황과도 무관하지않다. 아날로그 세대작가로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는 이국적인 전통음악과 함께 비트있 는 테크노 음악을 즐기고, 사이언스 픽션이나 인터넷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탐색하며, 첨단 전자기술이 빚어 내는 멎진 신세계를 전시연출에 즐겨 사용하는 미디어 작가이기도 하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21세기 문화 담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가상현실, 가상공간으로 대변되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런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급진적으 로발전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고조 되고 있다.

작가 이한수는 이러한 시대의 꿈과 희망, 욕망이나 갈등, 모든 것이 뒤섞인 혼성문화적인 양상을 공상 과학 적이고 미래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준\_삼성미술관 학예연구실장

**A Futuristic Fantasy, Landscapes of Hybridity: Lee Hansu**

Lee Joon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gress of media are rapidly transforming the environments of human lives. Stories previously unimaginable even in science fiction are now coming into reality. We live in an era in which cyborgs are born, and surgical sex changes and the cloning of chromosomes are possible. The Internet replicates itself like a living organism, enabling simultaneous, borderless, global communication. We are able to experience dreams and fantasies more real than our own reality in the virtual spaces created by cutting-edge electronic apparatuses. As Jean Baudrillard observes, we live in a world ruled by copies and images without originals, a world in which the reality that actually exists and virtualreality cannot be distinguished, that is, the ‘society of simulacra.’ Nevertheless, no one can predict whether this future society governed b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a utopia or a dystopia.

Since the mid-1990s, returning from his studies in Germany, Lee Hansu has been dramatizing the patterns of dreams, fantasies, and dis-eases of the technopia era through an imagination inspired by science fiction. The diverse materials painted in fluorescent pigments in dark exhibition galleries, and installations that use black light, laser beams, a variety of machinic trappings, and automatic sensors, easily introduce viewers to a world of fantasy. A model toy car (or an unmanned space mobile) darts around in a gallery with a camcorder mounted on it that simultaneously broadcasts the captured images on a large LCD screen (Weather Forecast from Uranus, 2001). An elephant doll with a laser pointer and propeller attached to it, is activatedwhen a viewer approaches it (Messenger Z, 2003). These are just two examples of his works that involve viewer participation and reflect dreams and fantasies about unknown worlds. Weather Forecast that allows viewers to imaginatively experience space exploration and Messenger Z that becomes a messenger from a mysterious dimension and emits laser beams, are both products of a pseudo-scientific imagination about the future.

In his works, however, we also witness expectations and worries about whether this techno-utopic world will indeed realize human ideals or exaggerate its negative outcomes. Robot Two (2001) is composed of silver rubber balloons in the shape of two robots with eight arms that inflate and deflate according to the viewer’s response. They move like scarecrows with the aid of an electric motor with a sensor that injects air into them. The robots repetitively lie down and stand up as the motor whirrs and the air goes in and out. Yet their movements seem listless. What is interesting here is that the robots’ form borrows the shape of the eight-armed Guanyin Bodhisattva widely seen in Southeast Asia. In this way, Lee marries religious or serious topics with light, cheerful technological methods, and by doing so, reflects back the status of human lives in a quickly changing world. The video work Laser Man’s Spiritual Exercise in Snowy Mountains (2002), which shows a space-suited and helmet-clad cosmonaut doing a Tai-Chi exercise on a mountainside, employs a similar strategy. Combining the Zen meditation exercise recently popular among laypeople and the slow motion of an astronaut swimming slowly in zero-gravity space, the video symbolically depicts the modern human being on its way to a brave new world.

This cross-breeding quality in Lee’s work appears more expressly in his recent work Egoless Monster Technopia (2003). This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in which an animated alien combines with and changes into religious saints such as Jesus, the Virgin Mary, and the Buddha, seems to lampoon a future religious pluralism where science fiction and several different spiritual dimensions are all jumbled up. These days, due to digital technologies and advanced Internet media, images are easily processed, altered, and combined. Religious icons are no different from the monsters or avatars on the Internet; they both infinitely multiply and metamorphose in the virtual space of the Net, and the artist humorously parodies these icons by stripping off their auras. His parodies of the new realities of pluralism, hybridity, and identity, in the cultural environments of this new technological era are also present in the titles of his works that amalgamate different meanings.

Typifying the ethos of his art and also appropriately expressing such metaphors are 21st-century Bodhisattvas (2001), Cloned Angels (2002), and more recently, Fancy Nirvana (2003). Unfolding in dark rooms, these works are composed of hundreds of plastic or plaster copies of dolls and religious icons of the East and West on the gallery floors. Clone Angels consists of heads of Baroque-style putti replicated and colored in assorted hues; in 21st-Century Bodhisattvas, western garden gnomes in space helmets and seated in lotus positions impersonate Buddhist bodhisattvas enshrouded in nimbuses; in Fancy Nirvana, an oriental bodhisattva statue, multiplied in fluorescent pinks, oranges, yellows, and greens, and emitting laser light from between their eyebrows, is reborn in more lighthearted, fantastic guises.

In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virtual reality represents reality more plausibly, and cloning technology reproduces human genetic material. Even the sacred images of angels and bodhisattvas may be replicated infinitely, and their uniqueness andsacredness cannot be guaranteed. Nothing is exempt from replication. Baroque putti, garden gnomes, bodhisattvas, etc., these replicated icons emitting all different fluorescent hues under the black light, exist like diverse human populations. Fantastic and kitschy laser-beam patterns (UFOs, putti, heart shapes, etc.) project from the icons' foreheads, in between their eyebrows, onto the gallery walls. Some of the figurines have fallen on the floor. Some don't glow like others. A few of them have only holes but no light coming out of their heads. These icons of replication reveal the dreams, fantasies, and anxieities of our technopic era, while also reflecting the patterns of hybridity of the diverse human groups of the world.

Early on, Umberto Eco predicted that the global civilization of the new millennium will be a 'crossbred hybrid' of numerous different cultures. The territories and borders of the global village have grown increasingly narrow. The religions, cultures, politics, and economies, of the world interpenetrate one another and are hyper-sensitive to the flow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t is not easy to find uniquely national or local cultures amidst the onslaught of globalization. Everything travels across borders. This global system has weakened previously clear regional and national boundaries and is causing encounters and collisions between different civilizat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can effortlessly come in contact with many cultures in the comfort of our homes. In our age,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actual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nalog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in co-existence, and their distinctions are more and more vague and unclear.

With the rapid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Earth's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fast. The human body and consciousness naturally change and adapt to surrounding environments. Lee's work, which freely traverses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the real world and fantasy worlds, and parodies cultural phenomena, is clearly related to this current situation. As an analog-generation artist living in a digital age, he enjoys techno music and fusion cuisines and likes to explore science fiction and cyber space. He is also a new media artist who likes to explore the splendid new dimensions created by cutting-edge electronic technology in his installations. However, no one can be sure whether the future society represented by digital technology, virtual reality, and virtual space, will turn out to be a utopia or a dystopia. With his particular sci-fi, futuristic imagination, artist Lee Hansu parodies contemporary culture’s dreams and fantasies, desires and crises, and self-contradictory or culturally hybrid landscapes.